

세계 모든 디자인은 '광주'로 통한다



죽파의 방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3전시실 '락(樂)' 섹션에 출품된 김영일 작 '죽파의 방'. 유명 국악인들의 악기를 전시장에 매달아 악기 속에 담긴 디자인의 세계를 보여준다.

제3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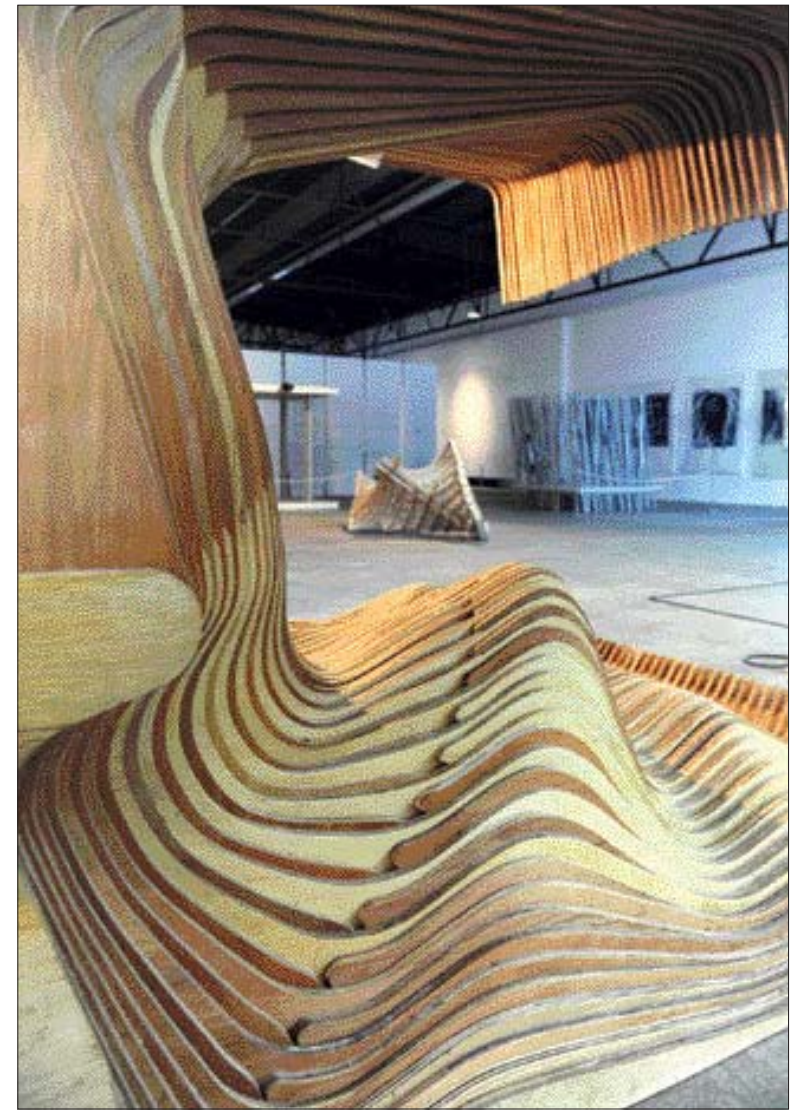
한옥 등 남도의 문화 원형과 세계 각국 디자인의 현주소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제3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18일~11월4일)가 1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48일간 비엔날레 전시관 등지에서 열린다. 이번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옷, 맛, 집, 글, 소리 등 5개 주제전과 살림, 살림, 어울림 등 3개 프로젝트로 펼쳐진다. 일본의 패션디자이너 이세이 미야케,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디자이너 장 폴 고티에, 독일의 자동차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 등 48개국에서 519명의 작가들이 참가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치러진다.

특히 시인과 연극인, 순수미술 작가 등 타 장르 예술가들이 디자인으로 데뷔해 시, 음악, 회화, 설치, 조각에 담긴 디자인적인 요소를 찾아낸 작품을 선보이는 등 다양한 볼거리도 풍성해졌다.

또 근대 문화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이장우가옥에서 차를 마셔볼 수 있는 등 이색 참여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



▲ 휴식공간 소재원

2전시실 '주(住) 섹션의 지하 하이드라작 '틈을 통해 드러나는 공간'. 담양 소재원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한 휴식 공간이다.



◀ 전통혼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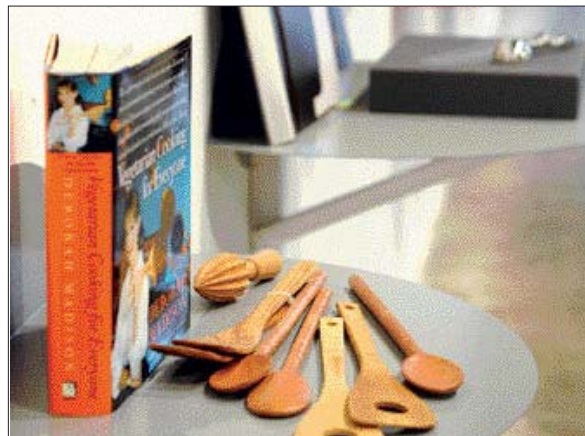
프로젝트 '어울림'전(남구 양림동 이장우 가옥)의 개막 행사로 열린 전통 혼례 재현 장면.

▼ 천개의 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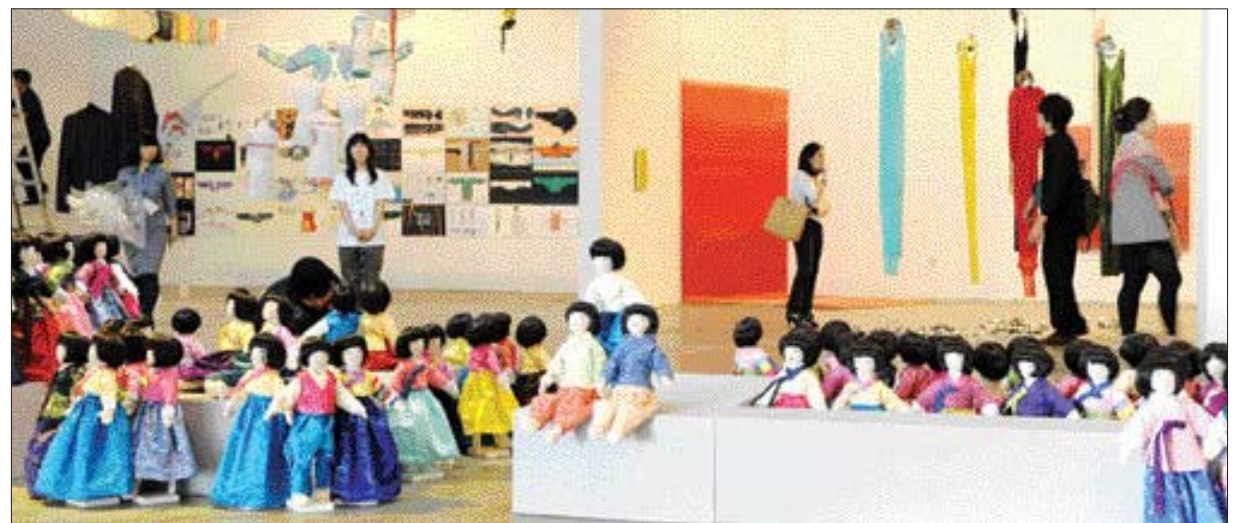
'의(衣) 섹션의 참여한 배영진씨의 '천개의 인형'. 한국 전통 의상 전문가인 배씨는 한국인의 다양한 얼굴을 인형으로 표현했다.



'송례문 광장' 붉은 고추 일본의 설치미술가 유나구니 스스무 '식(食)섹션'에 내놓은 '송례문 광장'. 붉은 고추를 탐처럼 쌓아 송례문 방화 사건과 한국인의 슬픔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책있는 부엌 '식' 섹션에 출품된 요리연구가 오정미 작 'Cook's kitchen'.



대한민국 차 무분 전통식품 명인지정

국내산 100% 블루베리

국립민속박물관

T. 062-222-7476, 010-3034-7476